

# 전주시네마프로젝트: 넥스트에디션 공모

전주국제영화제, 국내 프로젝트 최대 1억원 · 해외 프로젝트 최대 5000만원 제작 투자

2025 전주시네마프로젝트 공모가 시작됐다. 11일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에 따르면 온라인 출품 사이트에서 진행, 마감은 12월 20일이다. 이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장편 독립영화 프로젝트를 발굴해 전주국제영화제가 제작, 투자한다. 최종 선정된 국내 프로젝트는 최대 1억원, 해외 프로젝트는 2작품 이하 각각 최대 5천만 원의 제작 투자를 받는다. 공모 대상은 시나리오 개발 완료 후 제작에

정 또는 제작 진행 중인 극영화/다큐멘터리/실험영화 등 장르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단, 장편 1편 이상 연출한 경험이 있는 감독(연출자)이나 장편 1편 이상 제작한 경험이 있는 프로듀서가 대표로 있는 제작사여야 한다. 국내 4편, 해외 4편 등 총 8편은 제17회 전주프로젝트 기간 중 작품 공개 피칭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심사위원의 피칭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에게는 제작 투자가 이뤄진다. 최종 선정작은 제작 투자 후 제27회 전주국

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섹션에서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출품은 전주국제영화제 출품 사이트(<https://entry.jonjufest.kr/>)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한편 제17회 전주프로젝트는 2025년 5월 4~6일 3일간 개최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프로젝트팀(j.project@jonjufest.kr/(02) 2285-0562)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 정읍시립박물관, 어린이 문화재 발굴 체험 교육 '호응'

고고학자 되어 유적 발굴 체험 진행

정읍시립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어린이 문화재 발굴 체험 교육이 어린이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고고학자가 되어 유적을 발굴하는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체험은 정읍에서 발견된 유적을 그대로 재현한 발굴 체험장에서 이뤄진다. 참가 어린이들은 발굴 도구를 사용해 모래 속에 숨겨진 유물들을 찾아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물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유물 발굴의 재미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정읍시립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어린이 문화재 발굴 체험 교육이 어린이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시립박물관의 이 교육 프로그램은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이 시작된 2022년 이후 매년 약 10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매년 신청이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어린이들이 체험 교육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협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까지 함께 배울 수 있다"며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편, 시립박물관은 이번 어린이 발굴 체험 교육과 연계해 주말 프로그램 '알쏭달쏭 선사시대'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선사시대 토기와 장신구를 제작해 보는 체험으로, 11월

3~4번째 주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시립박물관 홈페이지와 전화(063-539-6792)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은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닥섬유 컬러믹스 워크숍' 참여자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6일까지 전통한지 예술교육 프로그램 '닥섬유 컬러믹스 워크숍 : 만지작(萬紙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한지에 사용되는 다펀 섬유를 소재로 활용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한지 컬러믹스 기술

을 배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전주대 한지문화산업학과 이유라 교수가 강사로 참여한다. 워크숍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진행된다. 한지 소재의 창의적 디자인을 배우고자 하는 누구나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jnhm.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장은성기자

자세한 사항은 전통한지팀(063-281-1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영 원장은 "한지의 주재료인 다펀 섬유는 뛰어난 내구성과 자연스러운 질감, 친환경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패션이나 인테리어 등의 디자인 분야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며 "한지의 다양한 쓰임을 배우고 예술적 감각을 향상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기자

# 미디어아트 & 합창콘서트 '군산 세레나데'

군산시립합창단, 제118회 정기연주회 14일 개최

군산시립합창단(지휘 주광영)은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18회 정기연주회 '미디어아트 & 합창 콘서트 <군산 세레나데>'를 개최한다. '미디어아트 & 합창 콘서트 <군산 세레나데>'는 미디어아트와 합창의 융합을 통해 군산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조명하며, 군산시립합창단이 군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기획한 연주회다. 이번 연주회는 1380년 고려의 최무선 장군이 진포 앞바다(현재의 군산)에서 왜구를 상대로 거둔 중요한 승리를 소재로 한 '진포대첩'으로 막을 열며, 문정현 작家的 시와 군산 민요 '육구 농사짓기'의 멜로디를 차용한 '뽀꾸는 육구'가 연주될 예정이다.



특히, 군산을 비롯한 호남선교의 초석을 다진 윌리엄 M. 전킨 선교사를 기리는 창작곡 바다의 등불은 '지혜의 등불', '치유의 손길', '희망의 기둥'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곡 '지혜의 등불'은 전킨 선교사의 교육 활동을, 두 번째 곡 '치유의 손길'은 의료 활동을, 세 번째 곡 '희망의 기둥'은 군산의 미래 비전을 상징하며, 미디어아트와의 결합을 통해 전킨 선교사의 활동을 시각적으로 재현해 선보인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한자리에서 음악과 시각적 감동을 동시에 맞볼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예술의전당 흥양숙 과장은 "군산시립합창단의 합창과 미디어 아트의 결합은 관객들에게 군산의 역사를 다차원적이고 감

각적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군산시의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하며, 전 좌석 유료(5,000원)로 진행된다.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전 예매를 못한 경우 공연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기타 공연 관련 문의 사항은 군산시립합창단(063-454-55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 제13회 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다음' 성료

제13회 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다음'이 지난 9일 해돋이로 지방정원 다목적광장에서 30개 동호회, 300여명의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페스티벌은 부안군이 주최하고 (사)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관했으며 공연 분야에서는 두드리고 난타, 지금 이순간, 기타 사랑 등 16개 동호회가 참여해 음악, 무용, 전통 공연 등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다. 또 마실도탈공예, 늘봄생활공예 등 9개 동호회가 체험부스를 운영했으며 렌즈에 담은 풍경, 연꽃회 등 4개 동호회가 60점을 전시해 축제를 다채롭게 꾸몄다. 김성구 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장은 "동호회원들이 다양한 공연과 체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험을 쌓아 더 확고한 자신들만의 생활문화예술을 성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형두 부안군 부군수는 "부안군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께서 갖고 계신 무궁무진한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쳐주시는 덕분에 부안 예술이 활기를 띠고 문화의 저변이 확대됐다"며 "이로 인해 군민들이 일상 속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하시는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현재 음악·무용·공예·문학·미술 등 7개 분야, 91개 동호회, 12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